

어용적방식에 따르는 로어교제활동분석과 그에 기초한 문장번역방법

김 강 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0페이지)

오늘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기 위한것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교육내용을 현실이 요구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며 기초적인 내용과 전공관련내용을 밀착시키고 최신과학기술성과들로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시기 언어학의 새로운 분과로 등장한 어용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어용적방식(прагматический способ)에 따르는 로어교제활동을 분석하고 이러한 교제활동에서의 로어물음문을 대상으로 어용적의미가 나타나도록 적중하게 번역하는데서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을 론하려고 한다.

여기서 로어교제활동은 크게 의도행위와 영향행위를 구성내용으로 하는 어용적방식에 기초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의도행위는 교제정황에서 말하는 사람의 숨은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하며 영향행위는 상대방에 의하여 듣는 사람이 다양하게 감수하는 이러저러한 반응 또는 해당한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실례로 《Это злая собака.》(이 개는 사납다.)라고 하면 이 말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는 개가 사나우므로 개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일깨워주자는것이다. 여기에서 이 개가 집을 지키는데서 쓸모가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은 의도행위이며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겁나하거나 뒤로 물러서려는것을 보고 만족을 느끼는것은 영향행위로 된다.

교제활동에서 상대방은 언어행위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의도행위와 영향행위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언어행위의 어용적의미를 제때에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 흔히 의도행위와 영향행위의 의미는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다.

언어적표현형식과 언어행위는 서로 련관이 있다. 여기에는 일정한 리치가 있다.

Друзья пригласили меня встречать Новый год. После спектакля я побежал в магазин. Надо было купить подарки. Но магазин уже закрыли. Продавец спросил:

- Почему вы так поздно?
- Я играл в спектакле.

— Эх, молодость, молодость!

(친구들이 설맞이모임에 나를 초청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나는 상점으로 달려갔다. 선물을 사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상점은 이미 문을 닫았다. 판매원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늦었는가요?》

《난 공연을 했습니다.》

《참 청춘은 청춘이야!》)

우의 실례에서는 정황이 주어졌으므로 대화의 행위에서는 일치하는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것도 있다.

상점문을 닫은 상태에서 판매원이 《왜 그렇게 늦었는가요?》라고 묻는 의도행위는 물건을 살수 없다는것으로서 영향행위와 일치한다. 청춘시절이 좋은 때라고 반복하는 말의 의도행위는 찬양보다도 중요한것을 가려볼줄 알아야 한다는 비난의 뜻빛갈을 담고있다.

어용적방식에 의한 로어교제활동과정을 분석하여보면 말의 내용과 의도를 갈라낼수 있다.

Было 11 часов вечера. Возбужденный Митя Иванов влетел в квартиру родителей.

...

— Откуда ты? —удивились родители. — Что с тобой?

— Ох, не спрашивайте! Я и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не мог, что так будет! Это фантастика!

Митя засмеялся и сел в кресло, потому что вдруг обнаружил, что от радости не может стоять.

— Что ты имеешь в виду? Что случилось? — ещё раз спросила мать.

— Это фантастика! —повторил Митя. — Вы не можете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 Вот, смотрите! —и Митя положил на стол газету «Новости».

Сестра встала и подошла к брату. Младшие братья тоже проснулись.

— Ну что случилось? Почему ты нервничаешь? —спросил отец.

— Я не нервничаю, это я от радости, - сказал Митя. — Раньше только вы знали, что живёт в Москве Дмитрий Иванов, а сейчас вся Россия узнает! Обо мне сообщили в газете!

— Что? Где?

— Вот, в газете! Читайте!

...

(밤 11시였다. 미짜 이와노브가 흥분해서 부모의 집으로 급히 왔다. ...

《너 어디서 오느냐?》 부모들은 놀라워했다. 《무슨 일이 생겼니?》

《물지 말아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같은 일이에요!》

미짜는 웃고나서 소파에 앉았다. 왜냐하면 기뻐서 서있을수 없다는것을 갑자기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넌 무엇을 녀두에 두고있지? 무슨 일이 생겼니?》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꿈을 꾸는것 같아요!》 미짜가 재차 말했다. 《어머니는 상상도 못할거예요.》

《이걸 봐요!》 미짜는 책상에 《노보스찌》신문을 놓았다.

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에게 다가갔다. 동생들도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 생겼니? 왜 넌 신경질을 부리니?》 아버지가 물었다.

《난 신경질을 부리는게 아니예요. 이젠 내가 기뻐서 그러는것이에요.》 미짜가 말했다.

《이전에 우리 집식구만이 모스크바에서 드미프리 이와노브가 살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요. 그러나 이젠 온 나라가 알게 될겁니다! 나에 대해서 신문에 소개했거든요!》

《무엇이라구? 어디에?》

《바로 이 신문에요! 읽어보라요!》

...)

우의 실례에서 언어교제의 어용적방식은 대화문의 표면에 드러난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 및 그것이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난다.

물음을 나타내는 문장들인 《Откуда ты?》, 《Что ты имеешь в виду?》, 《Что случилось?》 등은 물음문인 동시에 요구를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명령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Почему ты нервничаешь?》는 물음의 의미와 함께 신경질을 부리지 말라는 요구와 명령의 뜻빛깔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들인 《Это фантастика!》, 《Вся Россия узнает!》, 《Обо мне сообщили в газете!》, 《Вы не можете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등에서는 감탄의 의미와 함께 자기 금지감이나 자화자찬 또는 더 묻지 말데 대한 요구의 의미도 나타내고있다.

《Вот, смотрите!》, 《Читайте!》에서는 명령형으로 표현된 요구와 감탄의 의도를 표현하고있다.

어용적방식에 기초한 로어교제활동에서는 정상적인 언어교제형식을 초월하는 언어정황이 이루어지게 된다.

Зазвонил телефон.

Муж: -Кто-то звонит.

Жена: -Убираю комнату...

Муж: -Понятно.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남편: 《전화가 왔구만.》

안해: 《청소를 하는데...》

남편: 《알만 하오.》)

남편과 안해가 하는 우의 실례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련관이 없어보이는 교제형식으로서 일반적인 언어교제형식을 초월한다. 그러나 실지의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교제정황이 많으며 서로의 오해가 없이 충분히 의사가 통하는데 여기에는 어용적방식이라는 리치가 작용하였기때문이다.

전화종소리가 울리면 누구인가 전화를 걸어왔다는것,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안해가 받지 않고 거절하는 의도를 남편이 알아차리고 알만 하다고 한 말은 안해가 청소중이라는 정황을 알았다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화를 받겠다는 뜻이다. 안해가 한 거절의 의도가 담긴 말이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안해는

거절하는 의도가 담긴 말로써 남편이 전화를 받으라는 요구를 표현한것이다.

이 방식의 구조적리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Муж: — Кто-то звонит. (요구)

Жена: — Убираю комнату... (요구거절 + 요구)

Муж: — Понятно. (요구접수 + 요구허락)

우의 실례에서 알수 있는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대체로 두개 또는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Учитель выговорит Вовочке – дежурному по классу:

— Опять доска грязная, тряпка сухая, а на глобусе, – он ткнул в него пальцем,
– ПЫЛЬ.

— Это не пыль, – возразил Вовочка. – Это песок! Там, где у вас палец находится пустыня Сахара.

(교원이 교실당번인 보보치카에게 말한다.

— 《칠판이 또 어지럽구나. 걸레는 말라있고 지구의에는 먼지가 있다.》 그는 거기에 손가락을 댔다.

— 《이건 먼지가 아닙니다.》하고 보보치카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건 모래입니다! 선생님 손가락을 댔 곳에 사하라사막이 있습니다.》)

칠판이 어지러운것, 걸레가 말라있는것, 지구의에 먼지가 있다는 말의 뜻은 오늘 당번인 보보치카학생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하는것이다.

우의 실례에서 첫째 의도는 교실당번에 대한 책임추궁과 믿음을 어긴데 대한 원망이다.

둘째 의도는 교실당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명령이다.

학생인 보보치카의 변명은 유모아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받은 영향때문에 교원은 어이없이 더 말을 못하거나 보다 강한 책임추궁으로 이어질수 있다.

학생의 대답이 다르게 되어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응하였다면 의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졌겠지만 시정하려는 실제행동이 없으므로 교원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실제행동으로 시정의 의지를 보여줄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풍자와 비꼬움이 있는 말에서 자주 찾아볼수 있다.

레: Знаменитый хирург говорит больному:

— Это очень простая операция. Через полчаса вы уже сможете двигать ногами. Через час вы будете бегать. А вечером пойдете домой пешком.

— Доктор, а можно мне хоть во время операции немножко полежать?

(이름있는 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말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수술입니다. 반시간 지나서는 당신이 벌써 걸어다닐수 있습니다. 한시간후에는 달리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의사선생님, 수술할 때만이라도 좀 누워볼수 있을까요?》)

이름난 외과의사의 의도는 자기가 하는 수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수술이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경과가 좋아서 수술후 얼마 안있어 걸어서 집으로 갈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술전에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의사의 의도를 알았는지 말았는지 환자는 걷는것보다

수술을 받을 때에 좀 누웠으면 한다는것으로 의사에게 편잔을 준다. 의사의 총명성은 풍자로 대변에 꺾이운다. 의사가 한 말의 전반적의미는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훨씬 초과하며 그 일부에서 의사의 의도를 나타낸다. 환자가 의사의 의도를 이해하는것은 의사의 말에서 알수도 있고 이미전에 알고있는 의사의 의술, 다시말하여 배경지식과 추리능력으로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어물음문에서는 어용적방식에 의한 언어전략문제가 많이 적용되고있다.

그러므로 로어물음문이 나타내는 어용적의미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적중하게 번역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선 로어물음문은 《물음》의 의미가 《명령》의 의미로 바뀌면서 《요구》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레: Вам нельзя закрыть дверь?

(문을 좀 닫아줄수 없겠습니까?) [명령-요구]

우의 물음문의 의도행위는 《문을 닫아주세요.》이기때문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선어 불완전명사 《수》를 리용하여 조선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물음》의 의미가 《명령》의 의미로 바뀌면서 《부탁》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레: Хотите помочь? (도와주시겠습니까?) [명령-부탁]

우의 물음문은 도와주겠는가 도와주지 않겠는가를 묻는것이 아니라 언어환경에 따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의 의미를 나타낸다.

레: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부탁을 하나 할수 있을까요?)

우의 물음문은 간접물음문으로서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부탁을 들어주어야 합니다.)라는 부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로어물음문을 번역하는데서도 역시 불완전명사 《수》를 리용하여 가능성을 묻는 형식으로 번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허락을 해주세요.》라는 어용적의미를 나타내며 이때에는 같은 물음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레: Можно поговорить? (말을 좀 할수 있겠습니까?) [명령-허락]

우의 물음문은 교제상대방에게 《말할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허락받기》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내는데 번역에서도 물음문으로 하여 그 어용적의미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권고》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그러한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물음문을 그대로 리용하여 그 어용적의미가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

레: Почему ты не обратишься к врачу? (왜 의사와 상담하지 않니?) [명령-권고]

이러한 물음문에서는 이야기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병을 진단받지 않는 리유를 묻는다기보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어용적의미가 담겨져있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남의 잘못이나 결함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의미인 《충고》의 어용적의미도 나타낼수 있는데 이러한 물음문을 《명령-충고》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번역하여야 한다.

레: Почему ты так поздно? (왜 이렇게 늦었니?) [명령-충고]

우의 물음문은 이야기상대방에게 늦은 이유를 묻는것이 아니라 그가 늦어서 온 환경에서 그의 잘못을 타이르는 《충고》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추궁하는 《추궁》의 어용적의미도 나타낼수 있다.

레: Почему опоздали? (왜 늦었습니까?) [명령-추궁]

우의 물음문은 이야기상대방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는 기능이 아니라 지각한 사실,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게 따지는 《추궁》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물음문을 번역할 때에는 이러한 《추궁》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번역하여야 한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어떤 일을 밀고나가도록 부추기는 의미인 《추동》의 어용적의미도 나타낼수 있다.

레: Вы занимаетесь спортом? (체육을 하시겠지요?) [명령-추동]

우의 물음문은 이야기상대방에게 체육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묻는 의도, 기능이 아니라 《체육을 해야 합니다.》라는 《추동》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용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우의 문장번역에서 《당신은 체육을 합니까?》로 할것이 아니라 《체육을 하겠지요?》라고 하는것이 옳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물음》의 의미가 《알림》의 의미로 바뀌면서 《위협》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레: Разве так можно? (그럴수 있는가?) [알림-위협]

우의 실효문장에서는 《알림》의 의미로 바뀌면서 일정한 언어환경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할수 있는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는 《위협》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내므로 번역에서 그 어용적의미를 살려야 한다.

또한 로어물음문은 사실에 대한 《확신》의 어용적의미도 나타낼수 있다.

레: Кто в этом сомневается? (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겠습니까?) [확신]

Кто же не знает среди нас имя героя Ли Су Бока? (우리들중에 리수복영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확신]

우의 실효문장에서는 의심하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이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하여 묻는것이 아니라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리수복영웅의 이름을 안다.》는 《확신》의 어용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언어정황에 맞게 물음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말고 《확신》의 어용적의미가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용적의미에 따르는 로어교제활동방식에 대한 과학리론적인 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교제활동, 어용적방식